

“보살행의 삶 엿보기”

극단 작예모 '보리피리', 한하운시인 일대기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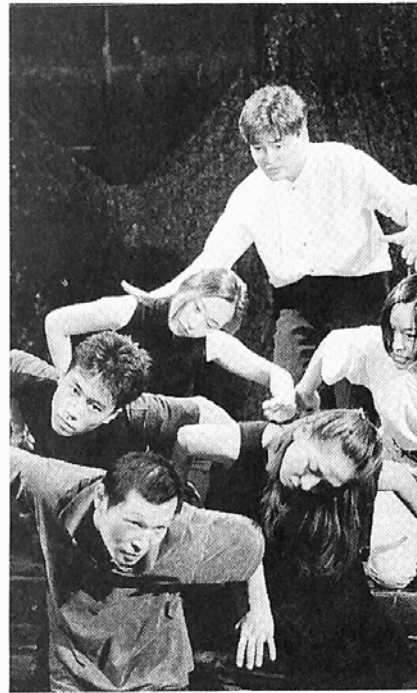
2일~11월2일 혜화동 연극실험실

.../돌이/ 무심한 돌부처가/ 그처럼/ 피가 돌아 생명을 혼길 수가 있을까
 갈수록 다정만 하여/ 아 문둥이 우는 밤
 번뇌를 잃고/돌부처 관세음보살상/ 대초월의 열반에/ 그리운 정 나도 풀라
 세세 생생/ 귀의하고 살고 싶이라
 <한하운 작 '관세음보살상' 중>
 문둥병이라는 더할나위 없이 비참한 천형의 삶을 살았지만 절망과 방황 좌절속에서 끝내 아름다운 시를 피어낸 시인 한하운(1919~1975). 문둥병으로 인한 처참한 삶의 흑독함에도 굴하지 않고 삶을 시로 승화시켰을뿐 아니라 나병환자들을 위한 여러가지 사회활동을 하는 등 버림받고 소외받은 자들을 위한 보시의 삶을 살았다. 이 한하운 시인의 생애를 극화한 '보리피리'가 불자들에게 이루어진 극단 작예모예술사 랑모임(작예모)에 의해 무대에 올려진다.

2일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 한달동안 동송동 연극실험실(혜화동1번지 02-763-6238)에서 공연되는 연극 '보리피리' (최문정 작 김운기 연출)는 한하운시인의 격정적인 생애를 통해 더러운 곳에 처해 있어도 항상 맑은 본성을 간직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연꽃같은 삶을 형상화했다.
 어려서부터 문학 음악 미술 운동 등 다재다능한 재능을 보여온 한하운. 그러나 그는 중 5학년때 나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됨으로써 운명적 시련을 겪기 시작한다. 그는 문둥병 거지로 이곳저곳을 떠돌며 갖은 고통을 당하고 좌절의 삶을 살게된다. 가장 밑바닥 고통에 빠져 있던 어느날 한 스님을 만나 '부모미생전 본래진면목(父母未生前 本來眞面目)'이라는 말을 듣고 번개 같은 것이 머리를 때리는 느낌을 받는다.
 '나란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라는 의문이 솟으면서 고통이 나고 더러운 이 몸뚱이아가 나의 전부야 아님을 깨달았

던 것이다.
 "생애 당시의 격동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또 문둥병이라는 이종고를 지니고 누구보다도 힘든 삶을 살았지만 한하운의 자아를 찾는 정체성의 끊임없는 추구, 타인을 위한 보살행의 삶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연출을 맡은 김운기씨는 이 연극이 연극계 최초로 합성연극이 될것이라고 말한다. 합성연극이란 희곡위주의 극이 아니라 무대세트와 음악, 연기, 대사, 몸짓 등이 각각 나름대로의 고유 이미지를 띠면서 서로 혼연일체가 돼 '살아있는 공간'을 잘 살려낼 수 있는 입체극을 말한다.
 지난 7월부터 '보리피리' 연습에 들어간 작예모는 매주 1차례씩 방배동 광명선원에서 초격스님으로부터 참선지도를 받으며 연기를 완성시켜 왔다.

이경숙 기자



○시인 한하운의 삶을 통해 자아를 찾는 정체성을 추구하는 연극 '보리피리'의 한 장면.

불심시집 <101>

가을은 비단 궁전

- 山中秋正好 (산중추정호) 산 속은 가을이 정히 좋아
- 木葉間靑紅 (목엽간청홍) 푸르름 붉음이 반반인 나무
- 醉面露霖雨 (취면로침우) 취한 낯을 가람비가 적시고
- 衰衾刷晚風 (쇠빈쇄만풍) 쇠잔한 귀밑머리에 늦바람 날린다
- 誰懸雲錦纈 (누가그름비단장막을드리워)
- 誰懸雲錦纈 (누가그름비단장막을드리워)
- 人在紫羅宮 (인재자라궁) 사람들 붉은 비단 궁전에 있네
- 絕勝春花色 (절승春花色) 봄 꽃의 색깔보다도 뛰어난 계절
- 神功顯化翁 (신공표화옹) 이 신성한 공력은 조화옹이 빌린 것이지

위 시도 오암(吳巖)대사의 시이다. 제목은 '가을 일(秋葉)'이라 제한 시이다. 가을 일은 단풍으로 대표되는 것이고 이는 주변에 널려있는 소재이기에 누구에게나 흔하게 선택되는 제목이다. 더구나 산사가 일상의 거처인 스님들에게야 더더욱 흔한 소재라 하더라도 흔한 느낌이 안 들도록 표현하는 것이 시인의 묘수인 것이다. 그것은 단풍이 고운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오히려 푸르름에 섞여 있는 붉음이 있어 더 붉어 보이는 것과 같다. 이 시에서도 이 점에 착안하여 시상을 이끌어냈다. 이점이 이 시를 시로서 어울리는 구성을 갖도록 하였다 하던 지나침일까.

성근 비인 가람비나 해저녁의 늦바람이 꼭 가을이어서만이 어울리는 소재는 아니지만, 그러나 쓸쓸함으로 인상지워지는 가을의 시에 등장시키는 역시 격에 맞는 소재이다. 이러한 가람비가 취한 낯을 적신다 했다.

이 취한 얼굴의 주인공은 시인 자신일 수도 있고, 산길을 걷는 나그네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단풍이 주소재가 된 이 시에서는 오히려 이 단풍 자체를 취한 얼굴로 대유한 것이라 할 수도 있으나, 이것이 오히려 시인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고, 그래야 다음 맺구의 쇠잔한 귀밑머리가 단풍에 섞여 있는 나그네의 쓸쓸함을 보다 더 두드러지게 이해하는 바른 감상일 것이다.

이 비단 숲은 구름 비단의 장막이다. 누가 달았느냐는 의문을 제기했음은 다음 구의 신비성을 예비한 것이고, 이것은 바로 비단 궁전이다. 불꽃보다는 아름다운 것 조화옹의 신령한 힘이다. 이 힘을 자연의 조화로 보는 것도 또한 자연 추구의 진실된 자세이고, 이 자세가 선가에서의 선리 추구와 서로 연관이 있다 할 때, 선사의 선리적 시로 돋보이게 한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제9회 종교예술제 “종교화합 기틀”



○'97 종교예술제 개막식 참석자들이 미술관에 전시된 김영원씨의 조각 '절하는 사람'을 감상하고 있다.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 우리나라 대표 종교들이 참여하는 97 종교 예술제가 9월 23일 오후 6시 예술의전당에서 개막했다. 개막식에는 송월주 조계종총무원장 홍인국 태고종총무원장, 정진석 한국천주교교회의장 최훈 한국기독교연합회대표회장 등 각 종교인들과 송태호 문체부장관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 축하했다.
 개막식후 참석자들은 미술관에 전시된 윤상민씨(한마음선원 심공회 회장)의 서예 '한산스님 선시' 등 작품 85점을 감상했다.
 종교예술제는 음악제(23일)에 이어 세미나(24일·프레스센터) 영화제(29~10.1·호암아트홀)가 각각 개최됐다.

화재의 전사



○ 청원 스님작 '백의관음상' (부분).

불교조각 30년 '첫 나들이'

청원스님 조각전 7일까지 공평아트홀

30년동안 불교조각일에 매진해온 청원스님(부산 금강불교조각연구소 대표)이 1~7일 공평아트홀에서 제 1회 조각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개인전에는 스님의 조각 특성을 잘 보여주는 석가모니불상 관세음보살상 지장보살상 탄생불 동자상 등 대작 30여점이 전시된다.

특히 이번 전시가 눈길을 끄는 것은 불상의 가사. 불상의 가사에 섬세하고 화려한 문양을 그려넣어 정교하게 그려진 가사는 손으로 만져보고 싶을 정도로 감각적이고 입체적이다. 또 그 문양에 금박을 입힘으로써 전체적으로 불상의 금색과 잘 조화를 이루며 불상의 품위를 한층 장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청원스님은 "오늘의 불교미술은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새로운 창작품을 찾기보다는 주로 전통에 안주하기 때문에 정체된 느낌을 주고 있다"면서 "전통과 현대미술을 접목 융화시킨 이번 전시회가 불교조각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통조각외에도 '달마가 전한 뜻은' '엄경대' '만다라' '바루' 등 현대적인 이미지의 조형작품들도 출품된다. (051)972-3912

진주불교회관 기금조성 불교음악제 '성황'

가을을 맞아 진주불교회관이 9월 28일 저녁 6시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보광스님 초청법회및 제4회 불교음악제'를 개최했다. 진주 불교회관 건립기금마련을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 1부는 '불교인의 바른 수행자세'를 주제로 해인사 주지 보광스님이 법문했다.
 제2부 음악제는 연화사 호국사 연화합창단, 도선스님, 지법스님, 정률스님과 지연스님 등이 참여해 '부처님과 수보리의 대화' 등 찬불가를 선보였다.

종광스님 신작展

사진을 오브제로 한 '산' 연작 시리즈 등 종광스님 초대전이 청담동 미화당(02-3443-4867)에서 8일까지 열리고 있다. '파격과 도전'으로 잘 알려진 종광스님의 자유분방한 필치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먹의 흘림법을 이용한 수묵채색화, 동심을 표현한 간결한 선화 등 스님의 신작 30점을 감상할 수 있다.

목야박물관 소장품전

인천시 부평구청은 오는 15일까지 구청 2층 전시실에서 목야박물관 소장품 전시회를 열고 있다. 이 전시회에는 박찬수씨의 동자상조각을 비롯

사리용구 등 불교관련 작품과 유물등 총 100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032)509-6125

심무용씨 전각초대전

불자 전각가 심무용씨의 전각초대전이 12일까지 부산 아트하우스갤러리에서 개최되고 있다. 새와 피라미를 주제로 한 이번 전각전에서는 심씨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나타내는 40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제2회 찬불가 가요제

불교대중음악의 저변확대를 위한 제2회 대한불교 찬불가요제가 7일 부산 KBS홀에서 열린다. 민족종교예술연예단이 주관하는 이번 가요제는 예선을 통과한 10팀이 경연을 벌인다. (051)529-6188

묘향산 유물·유적 5430점 보존

'민주조선' 최근호 소개

북한에서 발견되는 <민주조선> 최근호는 '묘향산의 역사 유물 유적' 기사를 통해 역사 유물·유적복구사업으로 묘향산에는 보현사를 비롯 총5천4백30여 점이 보존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묘향산에는 해방직후 보현사를 비롯 고찰 50여동, 탑 5기, 불상 1백1구, 불화 84점, 팔만대장경 1천1백59권, 불경목판 4천2백96매, 고서 2천7백10점, 불교의식 및 생활도구 1백49점 등이 산재해 있었다. 북한은 1976년 보현사 대웅전을 비롯 1979년 만세루 등 경내 부속건

물들을 복원했다. 특히 수층사 앞에는 김일성의 지시로 '팔만대장경 보관고'를 건립, 총 1천1백59권의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다.

삼화사 철불·석탑 문화재 지정 신청

삼화사 철불(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12호)과 3층석탑(문화재자료 제113호)의 국가문화재 지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동해시는 10일 향승영사 등 학계 권위자들의 의견을 청취, 삼화사철불·3층석탑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을 전문 화재위원회에 신청했다.



숨어있는 참나를 찾아

백팔고개 넘어 부처되기

계한 지음/328쪽/값 6,500원

물음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불교 교리도 이제 좀더 솔직하고 쉬운 언어로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되도록 알기 쉽게 쓰고자 한 것이 오히려 현문우담이 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를 알고자 하는 불자들의 진지한 물음 그 자체만으로도 저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기로 했습니다. 물음 하나하나를 자신에게 돌려 답을 구하다 보면 물은 사람 자신이 어느덧 백팔고개를 넘어 부처님 도량에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수행을 쌓아 부처님 되십시오.

— 계한 스님이



불교 길라잡이

리얼한 지음/값 18,000원

미라레의 十萬頌

가르마 첸치왕이 옮긴 영역본을 이정섭 풀이 옮김/값 18,000원

부처님의 아흔아홉 가지 말씀

이행기 지음/값 5,000원

알게 모르고 모르게 알고

원익범 지음/값 6,000원

禪으로의 초대

스즈키 순류 지음/최세만 옮김/값 5,000원

갖고 싶은 경전 시공 불교경전

시공 불교경전은 현대적인 해석과 감각있는 편집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형식의 경전입니다.

1 유마경

정순홍 풀이 옮김 / 값 12,000원

한 편의 연극 같은 유마경의 설법

2 법화경 1·2

이연숙 풀이 옮김 / 값 각각 12,000원

영원한 부처님의 가르침

시공 불교경전은 계속됩니다.